

1956. 4. 22. 창립
(교회창립주일 4월 넷째주)
2026.06.28.(제3760)

아현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29길 11(북아현동) (03773)
·Tel. 363-1452 ·Fax. 393-8148
·목사관. 717-2050, 365-2051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신앙의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리스도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당신의 몸 외에는.

이 세상에 그분의 손도 없고 발도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발 외에는.

당신의 눈을 통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자비의 눈길을 보내십니다.

당신의 발을 통해 그리스도는 선을 행하러 걸어 다니십니다.

당신의 손을 통해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당신의 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 아빌라의 테레사 -



기독교
대한감리회 **아현중앙교회**
AHyun JoongAng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권오진

Senior Pastor O Jin Kwon

www.ajmc.or.kr

주일아침 예배순서

1부 7:00
2부 11:00

성령강림 후 제5주

집례: 권오진 목사
오석만 목사
손민승 목사

오르간전주.....반 주 자 ※신 앙 고 백....사도신경.....다 같 이
※입 레 송...524장(1,3절)...다 같 이 ※영 광 송.....4장.....다 같 이
※예배의부름.....집 레 자

내가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
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시 89:1)

※경 배 찬 송.....15장.....다 같 이
※공동의 회개기도.....다 같 이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안정과 편안함을 더 의
지하며, 우리 결의 연약한 이웃을 외면했던 모습
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높아지려는 마음을 내려
놓고, 낮은 자리에서 나누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
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 독 문...7번(시편13편)...다 같 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
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같이)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 도.....이평식 장로

주기도영창.....635장.....다 같 이

헌 금.....다 같 이

※봉 헌 송...211장(1절)...다 같 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론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목회·봉헌기도.....담임목사

성도의교제 평화의 인사, 교회소식 다 같 이

성 경 봉 독.....집 레 자

구 약 | 이 사 야 58:6-7

신 약 | 마 태 복 음 25:35-40

찬 양...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찬 양 대

중 언.....권오진 목사

『 건물주에서 조물주에로 』

결단의 찬송과 기도.....다 같 이

※복 의 선 언.....담임목사

※후 주.....반 주 자

※표에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통계

예 배		교 회 학 교	
주 일 1 부 예 배	45	영 아 부	6
주 일 2 부 예 배	276	유 치 부	14
주일실시간방송예배	42	유 초 등 부	19
첫 단 추 기 도 회	·	중 · 고 등 부	22
목 장 모 임	·	청 년 부	20
수 요 성 서 연 구	60	예 수 소 망 반	29
수요실시간방송예배	11	생 명 의 삶	-
금 요 성 령 집 회	58	주 일 성 서 연 구	방학
금요일실시간방송예배	34	합 계	110
합 계	526		

6k for waters

행사 준비 - 오후 1시 15분
행사 시작 - 오후 1시 30분
1층 만나홀

다음 주: 첫단추기도회
(제 4, 9 여선교회 주관)

현 금			
주 일 현 금	1,811,500	감 사 현 금	2,530,000
교회학교현금	155,500	생 일 현 금	200,000
월 정 현 금	1,570,000	선 교 현 금	720,000
십 일 조	5,610,000	70주년감사현금	400,000
		특 별 현 금	100,000
합계 13,097,000원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중예배당

월 - 화	시편 강해 손민승 목사
수 - 목	레위기 강해 권오진 목사
금 - 토	디모데후서 강해 오석만 목사

수요성서연구

7월 1일(수)10:30, 오석만 목사

열린다 성경 “초실결과 칠칠절”
본문: 레위기 23장 11-14절
• 금 주 기 도 : 집례자
• 다음주기도 : 김은순 권사

교회학교 장년부 모임

주일 오전 10시 주일 오전 8:10

주일성서연구	예수소망반
방 학	박지연 전도사
	중예배당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1 부 예 배	주 일 오전 7:00	대 예 배 당
2 부 예 배	주 일 오전 11:00	대 예 배 당
첫 단 추 기 도 회	첫째 주일 오후 2:00	대 예 배 당
새 벽 기 도 회	월-토 오전 5:30	중 예 배 당
수 요 성 서 연 구	수요일 오전 10:30	중 예 배 당
금 요 성 령 집 회	금요일 오후 8:00	중 예 배 당
장 년 부	주 일 오전 10:00	대 회 의 실
영 아 부	주 일 오전 11:00	영 아 부 실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유 치 부 실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유초등부실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11:00	중 예 배 당
젊 은 이 예 배	주 일 오후 2:00	중 예 배 당
예 수 소 망 반	주 일 오전 8:10	중 예 배 당
목 장 모 임	매월 둘째, 넷째주 주일예배 후	목 장 별

6월 예배봉사인원

구 분	1부	2부
헌금위원	장춘기 문정이	신일철 이태영B 김혜영 이지혜 오혜리 이윤선
안내위원	윤희열	이성호 강숙희
강단헌화	(김경행 전차월)	
수납위원	김동수 심영관	
통계위원	김기석 안대형 이평식 조규성 김명훈 이성호	

지난 주일 증언

“한 가지는 한 가지에 집중합니다”

구약 예레미야 17:7-8

신약 요한복음 15:4-12

설교 : 권오진 목사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참으로 분주하고 바쁘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서 재정도 채워야 하고, 자녀도 키워야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하며, 커리어와 건강도 챙겨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니 이것저것 수많은 일들에 마음을 쏟으며 바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밤낮없이 열심히, 수많은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데도 정작 우리 영혼은 자꾸만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그럴싸한 스펙을 쌓고 편안한 환경을 갖추어도, 문득 찾아오는 일상의 무의미함과 영적 무기력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원한 음료를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영혼 깊은 곳의 갈증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메말라 수밖에 없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진단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명의 공급처인 포도나무를 떠나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본문 4절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파스칼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신성한 공간이 존재한다. 이 공간

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물질과 성공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 하지만, 그것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부러져 나간 가지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공간은 오직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의 유일한 할 일: 포도나무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오늘 주님은 내 힘으로 버티느라 지쳐버린 우리를 향해 해결책을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성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지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동일한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강변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세상에 가뭄이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공급처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스스로 수분을 만들어내려고 끙끙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의 유일한 생존 조건은, 그저 나무에 든든히 붙어서 나무가 공급해 주는 생명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과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삶의 메마름을 경험하는 이유, 삶의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혹시 포도나무이신 그분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분과 기도로 소통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어느 순간 무너져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포도나무이신 그분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심겨져 있던 물가에 다시 삶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일로 바쁘다는 핑계로, 코로나19로 온라인예배가 내 몸에 익숙해져버려서, 어느 순간 단절되어버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우리 안의 빈 공간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는 다시 생명력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그것을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거하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메노’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잠시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의 유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리에 영원히 정착하다, 굳건히 결합하여 살다’라는 강력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기분이 좋을 때만 선심 쓰듯 베푸는 가벼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자신의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인 자신을 꺾어 마르고 시들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친히 접붙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은,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메노’, 즉 영원히 머물러 사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호텔에 머무르듯 잠시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세나 전세집에 살듯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며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원히 거할 나의 집 주소를 주님의 사랑으로 정하고 그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잠시 머무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라고 부르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증거: 이웃 사랑의 열매

내가 지금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메노’하고 있는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아주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간절히 원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것, 그분의 마음이 온통 집중되어 있는 그 ‘한 가지 계명’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내 의지나 도덕적 노력으로 간신히 짜내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의 진액이 내 안

에 차고 넘쳐서, 내 주변의 목마른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사랑은 어떤 계명이라기보다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영원한 주소를 주님의 사랑으로 정하십시오. 호텔처럼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집의 주소를 그 사랑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6K 캠페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다음 주일에 창립70주년 기념 행사로서 전교인 6K for Water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구촌의 취약지역의 어린아이들은 오염된 물을 구하기 위해 매일 학교 대신 거친 황토길을 6km씩 걸어갑니다. 그 아이들에게 6km는 생존을 위한 절망의 길이자 고통의 길입니다. 그 거리를 우리도 함께 걸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지역에 식수시설을 지어주어 아이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입니다.

“식수대를 세우는 헌금은 교회에서 하는데 왜 우리가 직접 걸어야 할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의 목적은 헌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참여함으로 깨끗한 물이 없어 매일 먼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육적인 필요,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걷고자 합니다.

저는 월드비전에서 근무하면서 취약국가의 식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깨끗한 식

수가 제공되어질 때 그 사회와 공동체, 특별히 어린이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목격하였습니다. 단순히 깨끗한 물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온 마을 전체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번에 교회 70주년 기념사업기금에서 아프리카 가나의 판테아크와 지역에 식수대 하나를, 그리고 성도님 두 가정이 각각 식수대 하나를, 그래서 모두 3기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가나 판테아크와 지역의 만오천여명의 주민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도 헌금에 동참하고 싶다”는 분 계시면 헌금봉투에 6K를 표시해서 봉헌해 주시면 이번 식수대 지원 사업에 함께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저 황폐한 땅으로, 목마른 아이들의 영혼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지금 너는 나에게 붙어 있는가. 너는 물가에 잘 심어져 있는가.” “너는 내 사랑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든든히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영혼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공급하시는 사랑의 진액으로, 목마른 이웃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현중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 일 조 헌 금 (권오진 조고은) (송호준 황영진) (구본수 송명희) (안홍순 양경화) (이한표 김순영) (조순형 백문희) (권원자 이소영) (김경행 전차월) (김동수 전순남) (김문기 정건화) (김상길 정윤희) 박선례 오금복 이경희A (이명렬 최성애) 이윤선 이지혜B 이한나 임명숙 (정현호 송미숙) (최난주 한애선) (최영섭 서인숙)

월 정 헌 금 강정희A (김덕환 최현숙) 김도현 (김준식 김민식) (박세광 구향모) 박희 윤영화 (이능하 김기열) (이상환 최선규) 임연희 (정성규 심성희) (최영섭 서인숙) 홍순옥 홍연재

감 사 헌 금

(오석만 김선아) :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범택 윤옥희) :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게 하소서.

이평식 : 전국 장로회 제25대 회장 후보 추대감사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한표 김순영) : 저희 부부, 미국 MIT학부, 손자 졸업식에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강민구 허은혜) : 심방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강용국 노복순) : 세워주신 가정 가정에 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강정희 :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지켜주세요. 우리의 자녀손들 주일 성수의 복과 영육의 건강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세요.

고광섭 :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감사드립니다.

권소윤 :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권호진 정장미 온유 소유) :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진 장미 온유 소유의 미래를 책임져주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김덕환 최현숙)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병일 박경아) :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예린 :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예원 :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김예지 : 인도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정선 :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김정자 :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진숙 :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태민 : 입교예배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근 차용분) : 하나님 아버지, 아들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아버지께서 퇴원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회복하게 하여 주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박영식 정명자) :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박정숙 :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주희 :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무탈하고 건강한 일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하루하루를 허락하여 주세 요. 감사합니다.

유영순 : 생일을 맞아 지금까지 건강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서울 :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순희 :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영호 : 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용학 :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태영B : 생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호순 :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상현, 혜정의 가정에 귀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차정옥 :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보균 : 범사에 감사합니다.

태복수 : 생일을 맞아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홍순옥 :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저희 온 가족 건강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회서울연합회 : 전국장로회 추대 감사예배에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 교 헌 금 오혜리 총여선교회 (선교동역교회 태화샘솟는집)

생 일 헌 금 유영순 이태영 태복수

특 별 헌 금 강단현화 김준자 (장춘기 문정이) 창립70주년 김영미 김도현 (김상길 정윤희) (김제현 백옥순)

성도의 교제

■ 교회소식

- 맥추감사주일 : 다음주일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넘치는 감사로 하나됨께 영광돌리시기 바랍니다.
- 임시 기획위원회 : 오늘 오전 9시,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전교인 6K for Water 행사 : 오늘 오후 1시 30분에 1층 만나홀에서 진행되며, 오후 1시 15분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 티셔츠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층 로비에서 목장별로 배부합니다.
 - 간편한 옷과 신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용품 (썬크림, 모자, 양산)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긴급연락처 : 02-363-1452
- 부임심방 : 교원옥 (신일철 이태영)
- 7월 예배담당 :

주	주일		수	수요성서
	기도	성경봉독		
			1	집례자
7	박범택	집례자	8	김은순
14	홍영기	정성규	15	임명숙
21	조영익	조은지	22	최소연
28	집례자	정혜미	29	추화순

- 7월 예배위원 :
성찬준비 김수미 홍영기
1부 안내위원 : 김유임 현금위원 : 태복수 이찬주
2부 현금위원 : 박재훈 김보라 권호진 허상원 전동순

■ 모임안내

- 여선교회 회장단회의 : 7월 1일(수) 오후 12시 40분,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엠마오가는길(KOWE#124 여) : 7월 5일(주일) ~ 8일(수)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있습니다.
- 장학위원회 회의 : 7월 5일(주일) 첫 단추 기도회 후에 장학위원회 회의가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 장학위원 : 조순형, 오석만, 박범택, 김현숙, 김기석, 김수미, 안현수, 장영재, 우철주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원로목사 윤병상 백구영 손운산 이선균
- 부담임목사 손민승 오석만 김선아(부분)
- 수련목회자 송호준
- 전도사 박지연
- 교육전도사 서지수

■ 교우동정

- 감사 : 대예배당 신디사이저를 후원해 주신 안홍순 장로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주방 봉사팀을 후원해 주신 서태희 장로께 감사드립니다.
- 감사 : 교직원세미나를 후원해 주신 장로회, 장군복 권사께 감사드립니다.
- 입원 : 김고운 집사께서 강북삼성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 이사 : 염봉진 곽동경 권사 / 양천구 목동동로 350

♣ 여름철 신앙교육활동

영아부	7.19(주일) / 7.26(주일) / 8.2(주일)
유치부	7.18(토) - 7.19(주일)
유초등부	7.25(토) - 7.26(주일)
중고등부	7.31(금) - 8.2(주일) (국내선교)
청년부	8.21(금) - 8.23(주일) (국내선교)
여선교회	8.5(수)

■ 온라인 현금

019601-04-344912 (국민은행, 아현중앙교회)

현금 내용(현금자명+현금종류)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가족

-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은 안내석에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금요성령집회(7월 3일)

찬양	기드온 찬양단
설교	권오진 목사

■ 주일아침예배(7월 5일)

대표기도	박범택 장로
------	--------

■ 주방봉사

- 이번 주 : 2초원
- 다음 주 : 3초원-A

- 소속목사 김재성 장재호 김희진 남기정 정영준
- 성가지회 김정희 김병일
- 반주 최소연 이진경 박경아 황영진 김수빈